

심한 단백뇨, 고질소혈증 및 다뇨로 발현된 리튬 독성에 의한 신병증 1예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현정, 하혜정, 백주은, 신민기, 정은영, 장세호

서 론: 리튬은 1850년대 통풍 치료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은 정신과의 조울증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약제이다. 하지만 치료용량의 범위가 좁고(0.6-1.5 mEq/L), 혈청농도가 1.5 mEq/L 이상이면 독성이 있어 약물농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리튬의 장기 투여시 올 수 있는 신장 장애로는 만성 간질성 신염, 신성 요붕증, 신부전 및 드물게 신증후군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막성 신병증 1예와 신성 요붕증 1예가 보고 되었다. 연자들은 13년간 조울증으로 리튬을 복용한 환자에서 심한 단백뇨, 고질소혈증 및 다뇨가 있었으며, 리튬 복용 중지 후 호전을 보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44세 남자가 2주전부터 불안, 초조, 불면증, 구음장애, 손떨림 증세가 있어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13년 전에 조울증으로 진단 받고 꾸준히 리튬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혈중 리튬 농도는 한번도 측정하지 않았다. 신체 검진에서 생체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고, 그 외 특이소견 없었다. 검사실 소견은 혈색소 12.1 g/dL, 헤마토크리트 34 %, 백혈구 12,730/mm³, 혈소판 205,000/mm³, 총콜레스테롤 154 mg/dL, 총단백질 5.5 mg/dL, 알부민 3.3 mg/dL, 혈중 요소질소 30.7 mg/dL, 크레아티닌 2.8 mg/dL, AST 13 U/L, ALT 15 U/L이었고, 요검사는 요비중 1.015, 단백질 3+, 적혈구 numerous/HPF, 백혈구 1-4/HPF이었으며, 24시간 요 단백질 10,343 mg, 크레아티닌 제거율 21 mL/min이었다. 혈중 리튬 농도는 2.44 mEq/L이었고, 혈청학적 검사에서 HBsAg/anti-HBsAb/anti-HCV Ab (-/+/-), VDRL (-)이었다.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양측 신장의 크기는 8.5 cm와 9.5 cm으로 감소되어 있었다. 신 병리 소견은 사구체 죽돌기의 융합과 세뇨관 손상이 동반되어 있었다. 환자는 하루 약 7 L의 다뇨가 동반되었으며, 당시 혈중 전해질은 Na 140.8 mEq/L, K 3.9 mEq/L, CL 116.8 mEq/L, 혈중 삼투압 275 mOsm/L, 소변 전해질은 Na 15.1 mEq/L, K 4.6 mEq/L, Cl 20.5 mEq/L, 소변 삼투압 73 mOsm/L 이었다. 현재 리튬 복용 중지 6개월째로 특별한 치료 없이 다뇨는 소실되었고, 혈중 요소질소 9.6 mg/dL, 크레아티닌 1.8 mg/dL 및 24시간 요 단백질 약 3030 mg으로 호전되고 있다.

결 론: 심한 단백뇨, 다뇨 및 고질소혈증을 주소로 내원한 리튬 독성 환자에서 리튬 중단 후 임상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